



2000년
10월 15일
제 26 호

가을을 담은 아름다운 믿음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비하르 데가볼리스 프로젝트

- 인도 현지 선교사업 선교팀별 담당지역 책임관리키로 -
- 보카로 교회지도자를 복비하르 선교 책임지기로 -



주장사 김 주 환 목사



조 은 제 정 로

할렐루야!

속히 오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한수를 앞두고 중단없는 우리의 신앙노정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님께 인도비하르에 다녀온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억의 인구를 가진 비하르주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빈곤과 음악법적, 정치권의 부패로 얼룩진 지역입니다. 복비하르주는 인구 천십오만에 0.01%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비하르주의 수도 파트나시는 1997년부터 인구4백만, 교인8백명 정도이며 '예수가죽'이 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를 주장사로 한 지회 일행 27명은 9월7일부터 17일까지 인도 비하르주의 10개 관문도시(Gate-City)에 기도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데카폴리스 프로젝트 (Decapolis Project)】에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파트나에 집결하여 20대의 낙사에 나뉘고 파트나 시외곽을 감싸며 돌면서 주의 권능

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경건(Prayer Walk)를 했습니다. 다음날 파트나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춘천성시화운동' 소개와 전략을 연구하는(성서사해 미나)를 개최하였으며, 5개조로 나뉘어 질자를 타고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복비하르주 10개의 중심도시를 방문하는 10~20시간 동안의 기도원정(Prayer Expedition)을 시작하고, 그곳 성도들에게 소그룹 기도모임을 시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이 비하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우리 '남은 자'들은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상기시켰으며 받아 뵈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여 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민지 않는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전파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기도원정팀은 결과보고에서 인도 성도들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들의 기도모임을 책임지고 격려,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다시 담당지역을 방문하겠다는 믿음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몇가지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첫째, 복비하르 10개도시에 소그룹 중보기도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격려하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 교회개척자, 전도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방문하되 뉴욕과 갈란드주 보카로와 춘천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방문하여 지도 격려할 것입니다.

둘째, 비하르의 청소년과 뉴욕, 춘천의 청소년들이 춘천 또는 비하르에 모여 연합수련회를 여는 일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분명히 마지막 때의 주자가 될 청소년들이 소망을 잃은 가운데 방황하다 법과, 마약 등 멸망의 길로 매어져 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들을 구원할 뿐 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 마지막 때의 추수군으로 일키는 것입니다. 이영길 선교사님께서 제작한 약 300곡이 수록된 영어찬양곡집을 사용하여 인도에 청소년 찬양사역이 일어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비하르지역 칠천오백만명 구원을 위해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충성으로 동참하여 추수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성 총회장에 선출된 윤철중 목사

- 부총회장에 증가교회 이정복목사 당선 -

지난 9월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성경인의 길"에서 개최된 기독교대한성경교회 제94차 총회에서 선거결과, 총회장 윤철중목사(춘천중앙교회), 부총회장 이정복목사(증기교회)가 각각 당선되었다.

윤총회장은 앞으로 교단의 전통과 위상을 세워 교단 및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기독교교단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 국제적인 교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성경

교단의 정체성을 확고히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교단, 도덕성회복, 교단화합, 농어촌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간다고 하였다.

윤총회장은 △1933년 5월22일 출생 △1959년 서울신학교 졸업 △1961년 목사인수 △모스크바 성경신학대학 이사장 △1998년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역임

기독교인 범시민 준법운동 적극 참여

- 10대 중점과제 추진, 전국 제일의 모범도시 조성 -

- 기독교연, 교역자연, 장로연, CBS춘천, 성서본부 앞장서 -

배제법 춘천시장은 9월25일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조양방식, 교통질서 확립 등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춘천의 모든 기독교 기관 단체들은 출산 참여기로 했다.

춘천성시화를 열망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춘천시의 준법운동을 환영하면서 동기간 뿐 아니라, 년중 계속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법을 지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민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말했다.

시가 마련한 10대 중점과제는 ①교통질서확립 ②공공질서지킴이 ③환경조양방식 ④서품·의약품 관리 ⑤청소년유해환경정화 ⑥청소년폭력및성적탈선방지 ⑦공공시설물정비 ⑧조세탈루예방 ⑨지역불가안정 ⑩도덕성회복 등이

다. 또, 중점실천과제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안전띠착용, 음주운전금지, 노상적치물, 광고물 정리, 한줄서기, 사제기 등 불법적 레단속, 상거래질서확립, 유해환경감시, 단속강화, 도덕성회복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준법운동을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읍면동의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명동과 시내일원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운동을 통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춘천을 준법도시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출산 수범해야 할 운동임을 자각하고 탈법되는 교인이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제5차기 총회 개최

황영진 연합회장(춘천침례교회 목사)은 오는 10월30일 오전11시 순복음춘천교회 만전전에서 동연합회 창립제5차기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사업 및 재정보고와 수석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게 되며 차기 연합회장은 규정

에 따라 현 수석부회장 김주환목사(춘천순복음교회)가 맡게 된다. 김목사는 성시화에 대하여 남다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96년 성서본부 설립부터 오늘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 성서본부 운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자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직을 겸임하게 되어 있어 성시화운동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성서본부 회원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대한합리회 총회

강리교 감독회장 이윤식감독 및 동부연회 김명기감독(원주제일교회)은 오는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금강산리교회에서 9개연회, 해외선교연회, 북한선교연회 서부연회 회원3천명의 총회가 참석하 가운데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보고

하고 이어서 9개연회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동부연회 감독 후보 자격자는 35명에 달하며 이중 감독의사를 표명한 자격자는 임택창목사(춘천석사교회), 박성혁목사(원주대성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38연대 삼천봉십자탑 준공식예배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황영진 목사)는 10월19일 오후2시 자매부대인 38연대 최천봉에 위치한 삼천봉 성당 침묵을 십자탑 준공식을

성하고 준공식을 거행한다. 또 이날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참가해 하나님께 준공예배를 드린다.

비하르에서 뉴욕·춘천 성사지도자 간담회 연다

인도비하르주 성시화를 위해 인도와 양자관계를 맺고 양육을 담당한 미국 뉴욕교회 지도자들이 10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비하르를 방문하면서 도시성시화의 모델

인 춘천성시화의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요청에 따라 인도 현지에서 세도시 지도자들이 만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주님께 돌아온 인도의 한 승려와 복음전도

인도의 동부지역에서 칼리(Kali)라는 여신을 섬기던 승려가 금년 5월 어느날, 마을에서 상영중인 "예수영화"를 보았는데 예수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다.

그 승려는 이때까지 자기가 숭상해 온 신에게 일관불변의 열심을 회개해줄 때 바쳤으며 인간의 죄를 영속의 피로 씻을 수 있다고 믿

어왔는데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피로써만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성경강해를 전했다. 현재 주민 86명이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있다.

인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다.

성시화를 위하여 힘쓰는 춘천석사감리교회



담임목사 임 태 창

【역직시책】

1. 총력기도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2. 성서교육과 신앙훈련으로 차세대인양 양성
3. 평신도프로그램 개발, 사업육성 및 활성화
4. 주 안에서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된 교회

『교회를 섬기는 본분』

- 부당임: 순화목사 김세훈목사
- 심방담당: 오은원전도사 신미자전도사
- 시무장로: 이영일 김유석 이학규 이무식 황용하 김수원 최정규 이영규 김재호 홍성운 박무일 이영규 박용도 신상봉 박병구 황정일 이동희 이 청 김철수 권병용
- 협동장로: 김광수

우리의 교회상

1.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능력받고 흠뻑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2.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고 겸손히 봉사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교회
3.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힘써 차세대 일꾼들이 활기차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



200-93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산27-21번지
사무실:261-6823 목사관:262-6803 목사실:261-7088
부목사관:262-7088 FAX: 261-6824

(합) 백양건설

주택·토목·건축 (종합)

대표 강 원 영

춘천시 약사동 155번지

TEL : (033)253-7447

FAX : (033)251-8754

거룩한 만남 (요4:1-9)

방랑자나 도망자에게 있어서 쉼의 우물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곳이다. 위로와 소망의 안식처이자, 영혼의 오아시스이다. 방랑과 도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바로 우물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기에 팔레스타인 무장 공동체 폭력들이 끊임없이 생기를 불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생기를 얻는다는 것은 전적인 안식의 은혜요, 땅과 부를 함께하며 쉬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에서 우물가는 종종 사람의 행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만남을 이루는 과정은 위험과 낭만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이슬이 특별히 사랑하는 라벨을 만나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 사랑을 완성한 곳은 역시 우물가의 살인적인 분노의 위험을 피하여 도망치는 방랑자가 먼저 되어야만 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 머물러야 했던 근거를 본문 1-2절에서 먼저 찾아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주시는 사역이 세세 요한의 세례보다 더 왕성하게 된 사실이 바리새인들을 자극했던 것이다. 그들보다 더 거룩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장애물임을 주님은 아셨다. 지금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고자 하

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선교의 주된 지역이 유대인들이 게나 데리고 취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지 못할 것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언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이다. 물론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아니었다.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길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의 선교가 주님의 명령과 간섭에 순종함이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는 방랑자나 도피자로 머물지 않고 영혼의 가정(막3:35)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가정"이 되었다. 하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기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과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영혼을 뿌릴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기도 그만 안하고 그만이 아니라, 꼭 통과해야겠다는 주님의 의지이다. 마치 갯세마내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한 후 저 많은 인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 순종을 하신 주

를 보는 듯 하다. 모든 사람들이 조종하고 거부하는 십자가의 길(사마리아의 길), 백주의 대배(제복사) 고통과 감동을 건지기 위해 이방인 로마 병정에게(사마리아 여인) "내가 마르다(물을 좀 달라)"하며 십자가에 달린 참인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보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나타난 우물가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더욱 생각나게 한다.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 감탄한 찬사 "보게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창24:16)와는 전혀 다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은 거룩한 만남 그 자체였다. 빛이 어둠을 물리내듯 주님은 남편을 다 잊어버린 두 경향이 있는 여인의 과거를 돌아보아는 일의 목적을 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완벽한 가정으로 회복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만남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은혜의 생애인 우물가 속 복음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며,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리라.

내 사고방식대로, 내 멋대로의 왜곡된 신앙에 근거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될 때 비로소 거룩한 만남이 될 것이다. 비록 넘어야 할 산과 장애가 아무리 높고 크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하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한 만남을 함께 이루자!

변석규 목사 (호헌성시신문교회담임)

9월 성시선교 후원자 명단

장기후원자님

이병연 김현철 안정숙 한희연 안미애 이준혁 오홍수 성기문 박동훈 정찬복 홍순복 정승원 정우영 한희연 김진현 최경운 임근영 유대희 민병영 정석준 조경국 정영남 윤진욱 김명범 이광규 엄필남 조영민 이광숙 허광환 한순수 유근상 이성호 조남진 조충환

특별후원자님

이병환 한민택(조흥은행사지점장)

초교과 후원교회

순복음촌교회(김주환 목사)
초천석사교회(임태창 목사)
초천초양교회(이원호 목사)
초천사암양교회(최상도 목사)
초천양곡교회(김길홍 목사)
초천일양교회(이은주 목사)
초천일원교회(신성근 목사)
초천사랑교회(정재호 목사)
초천사랑교회(김준연 목사)

단체후원자님

초천안정숙
이익래/조순옥(미도파출소근속금속)
신중철(유정건설)
이영규(영광건설)
이만호/윤영남(영광건설)
조은혜/김정희(메트로병원선교대)
강원영(백양건설)

※ 본지는 하나님 교회와 문서선교를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후원자를 기뻐합니다

성시후원금(예금주:조남진)
우체국200022-02-129749 / 농협203-02-280238 / 조흥은행716-01-001389

예수제자운동유럽형단 복음의 대장정

JDM예수제자운동(대표 윤태호목사)은 지난 2000년 7월10일부터 26일까지 개신교가 약해진 프랑스를 시작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5개국, 17개 주요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장정 27,000km를 행진하는 "제2차 유럽선교대회"를 개최했다.

12개국에서 총148명이 참가한 이번 선교대회는 종교개혁자와 기독교공동체를 탐방하며 21세기 유럽을 새로운 선교 사역지로 자리매김하여,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 소망을 알고 실천적 사역을 시도함으로써 캠퍼스 개척사역을 다짐하기 위해서 치러졌다.

또한 유럽 현지 선교단체와 한국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투자를 부여하고 한국 교회에 또 하나의 선교전력을 제시함으로써 유럽의 부흥을 모색하기 위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목사 일행은 스위스의 제네바,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방문하는 개혁주의 신앙회복을 위한 성지순례와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룩한 순례여행에서 전도를 통해 33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맺었고 그리스도와 역사의 순간을 함께 했던 중언들이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망의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임을 몸소 체험했다.

귀국길, 공항과 비행기 중간 기착지에서 수도 없이 기도 전도하는 예수제자운동팀의 모습에서 사도행전28장 그 이후의 계속되는 주님의 열심을 볼 수 있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 자신을 드린 젊은이들의 계속적인 사역을 통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묵상>

신데렐라 그리스도인

신데렐라는 요주의 힘을 빌려 유리구두를 신고 왕궁마차를 타고 왕궁에 들어가 왕자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 모든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버려 있었다. 그 자는 호박으로, 말들은 새마로, 면복은 누더기로, 유리구두는 구둣돌로 변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물론한 자정을 알리는 시계소리에 놀라 정신없이 도망쳐 나갔다. 오늘날 교회안에도 신데렐라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자신의 누추한 면복 상태를 드러내기 전에 재빨리 모의에 빠져 나와야 하고, 일단 누군가에게 약점이 노출되면 더 이상 고우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결코 신데렐라가 찾아간 왕궁의 무도회처럼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안고있으며, 그것을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해가 없는 것, 최강한 학습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이다. 신데렐라가 되고 애쓰지 마라. 당신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문제부서임의 그리스도인이요, 담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시화에 대해...

호헌성시신문본부장 명칭 자체는 1972년 호헌에서 탄생되어 지금까지 전하여 온 것으로 으빠워 운동하는데만 그치는 단체는 절대 아니다. 이에는 그리스도인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의 실속으로 들어가서 모범시민으로 거듭나고 이 도사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도사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성시화운동의 주된 이유이다.

또한, 본지는 성시화운동이 이 일을 주도해왔던 것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어느 누구보다도 연계하여 함께 협력한다. 신비적인 원동력이 바로 호헌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보다 빠른 시일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기독교와 교회를 후원하여 하다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 현재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시화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정에서 성시화를 위해 함께 동역할 교회와 단체, 선교교회, 모임, 개인 등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간증

성시신문을 제작하는 홀리뱅크들

본인은 호헌성시신문의 일을 맡고있는 한 사역자입니다. 2년 전 성시신문의 일을 전담할 자리가 비어 본만 관계자들은 나에게 그 일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사무하는 목사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는 판단에 거절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양의 뜻에서 매수되는 성시화기도모임에도 불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꿇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도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요청이 계속되었고, 어느날 가족을 통해 전달된 그 한사람의 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개혁교회'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시화사역이 지금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냐? 하는 말이었습니.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생각에 변화가 왔습니다.

98년 7월 어느날 조남진 본부장님으로부터 이 일에 관해 성시본부 대표회장님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곧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7월20일부터 성시본부에서 매일 상근하기 시작했는데 주된 업무는 성시화기도모임과 회원관리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시본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일 외에도 성시화에 대한 활동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적이고 효과적인 성시화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하여 여러날을 기도하며 고심하던 끝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여건이 불리하여 불가능한 현실이었지만 신문을 발행한다면 이 운동은 충분히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본부장님에게 의논했을 때, 아무런 대항도 없는 상황이었던지만 절대 찬성하셨고, 마치 성공한 것 마냥 함께 기뻐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사람의 믿음으로 "월간 성시신문"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98년 9월20일 성시본부 창립기념일을 기해서 창간호를 완성하기 위해 편집에 들어갔으며 발행작 후 호헌

성시신문 창간호를 발행했을 때, 성시일꾼들과 성도들의 격려와 찬사는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하였고 앞으로의 신문제작에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 신문은 타블로이드 규격에 16페이지로 업무상의 파장은 물론, 애산부족 문제에 부딪혔고, 주요 후원단체로부터 매월 50만원 후원금까지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절박함이 있던 재정에는 더욱 큰 타격을 입고도 앞날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여전히 달진적으로 거는 개인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인신공격을 받았고 사립에 빠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외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낯선 분들과 기대하지 않았던 분이 찾아와 격려해 주었고, 전이었던 조언으로 용기를 주었으며 특히, 결례에 아낌없는 격려와 힘을 실어준 이학규 장로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놀랐고 감동되고, 홀리뱅크들을 통해 기적의 선물까지 주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성시신문을 비롯한 성시활동이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고비마다 "홀리뱅크(Holy Banker)"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름없이 빛도없이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분들을 이용하여 "홀리뱅크(Holy Bank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홀리뱅크라는 명칭을 지은 한 사람은 유근찬안수집사, 조은창장로, 신중철안수집사로 지금도 어김없이 호수머니를 털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중단없이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홀리뱅크의 기적이 계속되는 한 성시화사업과 성시신문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은이 저들의 봉사위에 넘치도록 임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소식

- ★ JVF강원지방회는 9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9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7시30분 은주리장로교회에서 "직장인과 주부를 위한 PBS(개인신경연구)훈련"을 실시하고, 9월21일~11월23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7시30분 아시아선교회에서 "기독교정신을 위한 리더십 과정"을 강의한다. 각 회비 30,000원 / ☎ 033)252-5200
- ★ 강원노회장로는 제16기 원인에 회장 마길장로, 우무 김주경장로, 회계 전운경장로, 춘천시청부회장 한남수장로를 선출했다.
- ★ 대안예수장로회(임동)강원노회는 10월9일~10월14일 원주중부교회당에서 김용호, 안순광당도사의 목사인수가 있었다.

★ 월드비전호헌종교사복직자(관장 이순환장로)는 9월22일 서울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월트비전 창립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 기독교대한교회의 동부연회 장로회는 9월26~27일까지 속초 하일비치콘도에서 원로장로회의를 가졌다.

★ 강원노회예배본부선교회(회장 민정목장로)는 10월3일 오전10시 서울시대문 농협중앙회 근한관에서 농협기독교선교의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19의 "농협 농촌복음화 2000년국대회"에 참석했다.

★ 동부연회선교연합회(회장 정계형장로)는 10월19,20일 오후1시 양양군 서면 오색리약수터에서 제4차 협의회를 연다.

★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김용배 회

장)는 10월19일 오후7시 동부교회당에서 기독교직장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제6회 "직장선교관람대회"를 개최했으며, 직장선교예배가 31일 낮12시 동부교회에서 설교에 박인관목사(광명감리교회)를 초청, 춘천전날청와 춘천지방연합회 선교가 순서를 담당하여 개최된다.

용천교 개소식

★ 호헌군인우회(김정희 회장)는 10월11일 정오 용천회 회당식(한티관)에서 이준혁 목사(서적감리교회)를 모시고 10월장도예배를 드리고 직장선교와 복음화, 초교파적 교회연합을 위한 기도회와 친교간담회를 가졌다.

★ 호헌민간교회(양명환 목사)는 10월14일 전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절약한 단

풍맛이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양명환 목사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인천만수제일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강서교단(금관교회)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호헌군인우회 10월 정기예배 호헌군인우회(회장 김차경)는 10월24일 오후7시 호헌읍 갈마곡리 성민교회(이종희 목사)에서 10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헌화 및 정기월례회를 연다.



▶ 호헌군인우회 정기예배 드리는 모습



▲ 성시신문: 우리에 대해선 본: 살아야 하는 세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 중앙교회 집사 임직예배때

중앙교회(집사)는 10월3일 오전11시 본교회당에서 유근찬장로, 김동원 김형철 이영규 박재복 신덕진 등목회 이상근 이상우 이상준 조은환 안수집사정민 이병희 홍순복 권사 최민희를 임직했다.

교회학교 교육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상좌담

감독 선거

[참가자]

방송현 (강원도어린이전도협회 교육담당 목사)
황석남 (충원교회 교육부 부장)
변석규 (신원교회 교육담당 목사)
조순환 (춘천성시신문 편집인 목사)

사회자 : 예수님의 분부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학교 어린이 교육에 수고 가 많으신 목사님과 교사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중에 보내는 지상좌담회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학교에는 지혜요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성공적인 교육이 인될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가장 중요시하고 많은 제정과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할 곳은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TV, 컴퓨터, 놀이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교회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레고리 형식적인 교육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전문교사와 어린이교육 전문기관에서 사역하신 방송현목사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현 : 저희 어린이전도협회는 어린이들을 회심시켜 그 성장에 돕는 작업으로 교제개발, 교사훈련, 교회방문 실재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문제점이라면 훈련된 지도자의 절대적 부족과 담임목사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전문교사에 교육 받는다면 초중고생은 10년후에는 전문교사 인력이 될 것이며 전문교사가 교육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악순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저서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된 전문지도 양성에 모든 교회와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황석남 : 오늘 교회의 문제는 전문지도자 부족과 목회자의 이해부족입니다. 교사에 부여된 것은 성장문제와 제정문제로 대두됨으로 학생들에게 전력을 경주하게 되어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신율, 놀이 등의 일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협회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불신자 초등학생 약 5백명을 대상으로 교사를 6개교에 4명씩 배치하여 평일 속회예배 "세소식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손가정, 탈선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변석규 : 아동교육은 교회에서 완성이 불가능하며 가정교육이 우선되고 교회와 협력, 일치되어야 합니다.

민는 가정이라면 기도, 성경읽기 등 신앙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모교사님의 아들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수석한 재원이었는데 어린이전도협회를 가정교사로 초청,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기존의 교육은 성경위주였으나 이제 "멘토링 훈련법"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교사들의 리더십 훈련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무절한 사명감을 갖고 주일뿐 만 아니라 평일에 학생들과 많은 시간 생활을 같이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아이들은 믿음을 알고 언행에도 현저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또한 목회적인 오락들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변석규 : 교육은 교사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구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교육열이 생겨 멀어진 학생의 구원과 진인적 교육을 최선을 다하여 되어 교제준비,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세속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보다 효과적인 교회학교교육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현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멘토링"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시간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일 교육보다 주간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교육방법으로서 문제해결과 마음의 상처 치유가 가능합니다.

실례로 "멘토링"사역 결과 결손가정 아동 4명이 치유,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차 거친말과 욕설을 애사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기독교적인 고운 말을 사용하고 어린이다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 어린이전도협회가 충원교회에서 현재 운영중인 패러다임입니다.

방송현 : 전도대상 범위를 불신자로 넓힌다면, 먼저 교사에 대한 전문교육 훈련

황석남 : 현재 주일학교와 대에는 갈

은날 시간대만 구분한 것으로 별도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므로 독자적인 예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률적인 효과를 위해 별도 장소에서 예배하고 교육하는 융통성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야외에서의 예배로 전도효과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생각입니다.

변석규 : 이제 교회교육은 다양성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은 인터넷 정보의 홍수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저희 교회 중학생에게 주변 친구들을 전도할 것을 권유했는데, 그 아이 말이 요즘엔 교회에 나오는 대가로 예배 후 인터넷PC방에 보내준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유인할 수 있는 교육패러다임 개발이 시급합니다.

사회자 : 교회교육의 실상은 양질의 교육보다는 보다 많은 수를 모으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나 계절 교육에서도 신도들 유인하려는 인상이 깊은데, 아이들은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교회를 찾는 현상도 간과해서 안될 것입니다. 교회교육은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자는 데 있는 것이지, 교회충원수만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회의 지도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선도하는 일에는 무능함을 보이는 모습이어야말로 교육이 잘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아이들의 사회참여 교육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황석남 : 대사회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배와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통해서 주일학교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교육 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방송현 : 저희 어린이전도협회는 춘천 시내 10개 교회를 대상으로 결손가정 아이들과 같이 "멘토링"교육을 적용했고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이와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회와 사회와 가정의 어린이 문제를 치유하는데 눈을 돌려, 대사회적인 교회의 역할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9.10월엔 교단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대표를 선출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시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금관교회에서 제24차 총회를 열고, 연회감독과 감독회장을 뽑는다.

임기 2년의 감독은 개세교회, 지방회, 연회 전체의 영적, 행정적 최고 지도자로서 행정권과 감독권을 가지며 감리회 본부 각 국의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시행케 하고 시행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행에 반영하며 소속지방과 개세교회를 순방, 사찰하는 등 그 권한이 막강하다. 감리교회 감독은 정회원 20년급 이상, 55세부터 68세까지의 목회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감독 자격자나 감독의 뜻을 가진 사람은 많고 교회는 작은데서부터 결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부연회의 경우도 이번 총회에 32명의 감독자격자가 발표되었다. 이들 모두를 놓고 총대들이 투표로 다득점과 3명을 후보로 선정한 후, 즉석에서 총대들이 투표로 감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감리교회의 감독선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최고 지도자인 영적지도자를 뽑아 세우는 거룩하고 중대한 일이다.

후보 회망자는 주님의 사명감이 불붙고 목회에 성공한 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양심에 거침이 없는 자로서 대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허히 자기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비방하지 않아야 하며 약점이 아닌 덕담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물이 범람하는 선거를 과열시킨 우려가 있다. 조용하고 진지하게 알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가 더욱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밝히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현행법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민지않는 사회에서도 정치행태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온갖 탈법, 불법, 타락 선거 추방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시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피선거권자나 선거권자 모두가 기도하고 그 결과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 당선자 낙선자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여 더욱 충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칙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규 장로

(춘천성시신문, 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캄보디아 품봉에 교회세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이기종장로)는 절대빈곤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캄보디아의 구렁사육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였다. 캄보디아는 국민소득이 낮은 저개발국가

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선교가 어려운 나라이지만 기도로 교회를 개척하여 내년 2월중 교회를 봉헌하고 현지신학생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성시신문의 발전을 기다립니다

본지에서 10월부터 새로운 판을 만들고 열의있는 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해당분야의 원고를 매월 7일까지 본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이메일, 팩스, 우편, 인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본들의 참여로 호응이 좋을 경우, 재택근로 원고와 현제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간증, 교회, 교제, 신자들에 대한 조언, 행정기관이나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신학, 성경해설, 칼럼 등 교육적인 글]

* 원고 기증한 A4 1장이내이며, 내용이 건 경우는 몇회 연재가능합니다.

주 소: 춘천시 호서1동 373-90 월드비전사회복지관 내 1F 성시신문 앞

팩 스: 033)257-1260

이메일: kibble2@hiteel.net / kibble2@hossanna.net

위 치: 춘천경찰서와 공실운동장 사이의 다리 건너기 전 / 방송통신대학에서 감독들 따라 미지망 건물 / 순복음제일교회, 신원루식당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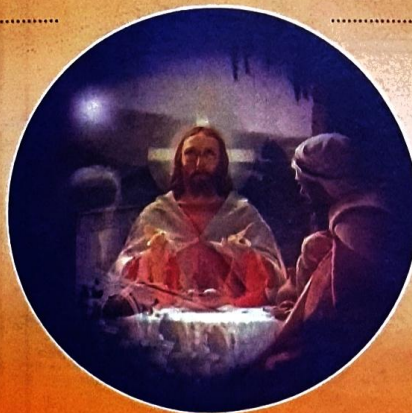
성·지·순·례 빛을 따라가는 길

여행상품안내

국내여행

- 전세버스대여
- 국내선 항공권
- 신혼여행
- 효도관광
- 산악시찰
- 전국 열차표 판매
- 전국 호텔·콘도 판매
- 도서지방 선포판매

- 출발 일: 2001년 1월 26일 (※ 선착순 모집)
- 순례지역: 이집트(사나산), 이스라엘, 로마
- 일 정: 10박 11일
- 금 액: 2,300,000원



해외여행

- 성지순례
- 국제항공권(B.S.P)
- 해외 신혼여행
- MBC문화탐방
- 여권 및 비자수속
- 여학연수/배낭여행
- 백두산 동춘해리 대리점
- 금강산 관광 대리점

문의 및 예약처

매 일 권 광 (주) 성지순례사업부 (200-070)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37-5
홈페이지: <http://www.maeiltour.co.kr>
전화: (033)253-4567 FAX: (033)253-8575
전무이사 허 봉(춘천중앙교회 집사) H·P: 011-374-4562
영업차장 박준영 H·P: 017-372-8282